

교회 회 표

삼일만 예배
천국으로 갈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대 주를 사경하니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H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2003년도 제 2차 정기회 훈련에 대하여(2) “위엿 것을 생각하라”

10월 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첫째 날 10월 15일 목요일- 바울의 회심(행 9:1-22)
둘째 날 10월 16일 목요일- 옥중에서 부르는 찬미(행 16:25-26)
셋째 날 10월 17일 목요일- 권짜와 같이 부름이 되고(골 4:6-8)

둘째 날 매시지 소개- 옥중에서 부르는 찬미(행 16:25-26)

있는 고난 속에서든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단순히 꼭 참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 불쌍히 삼한 매질을 당하고 나서 필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을 받던 한 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였다(행 16:25).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을까? 반면에 우리는 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불평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야, 그거야 우리는 사람이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말인가? 언제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운운하며 뒤로 물러설 것인가? 이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미의 근본적인 이유를 배워두도록 하자.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저 놀라운 신앙의 원동력을 우리 마음에 품도록 하자.

이제 창지기 훈련 둘째 날 10월 16일에는 ‘옥중에서 부르는 찬미’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므로 둘째 날에도 우리의 온 가족과 이웃들이 손을 잡고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자. 그리고서 필립보 감옥에서 풀려나고 저 놀라운 찬송 소리가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과 살 속에 널리 울려 퍼짐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에서 모든 빔장들이 풀리고 우리 안에 회개와 돌이킨 의의가 있게 하라(행 16:26). 고난 속에서 단순히 위로를 받거나 인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도록 하자. 이제는 고난을 한없는 기쁨의 찬미로 채우고,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 없이 효용을 구할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하자. “...오우라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리 아담의 하나님께 이르자 그가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시 23).

[참고 요오한 그 말들- 금요집회]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4. 듣는 자들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메시지는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다. 예수께서는 유산에 계시는 동안 팔레의 수종자(골 15:8)로 몸소 할례를 받으셨으며(눅 2:21-22),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다(갈 4:4). 사역을 행하실 때에도 율법을 준수하셨다(마 23:23). 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증을 받았다(마 23:32).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실 때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다(마 15:24, 마 10:5-6). 산상보훈에 5-7절,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들에 13절, 그리고 갈릴산 위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말씀들에 24-25절을 들었던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언제부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와 고난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엡 2:13-16), 이방인 고백의 회심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린 이후부터였다(행 10:3). 참으로 십자가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이전에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천국 문을 열어 주시자면 주님의 예언도 성령 강림 후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마 16:18-19). 베드로의 사역을 잠시 살펴보자.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크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서 중생케 하여야 함을 일차 세우고(행 9:32-35) 율법에서는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렸다(행 9:36-43). 특별히 율법에 머무는 동안 부정한 음식에 관한 한 상을 세 차례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음식에 대한 계명을 하신다’ 하지 말라(15:29)는 음성도 하느님으로부터 들었다. 이 환상을 본 후 베드로는 고백과 집회에서 온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했다. 이방인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 출신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행 10:34-35, 47-48).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백의 집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행 10:43). 이 모든 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다고 예루살렘 총회 앞에 서 대언히 회고하셨다(행 11:17-18).

결국,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중간에 막힌 담이 헐리고(엡 2:13-16) 이방인 고백의 회심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두 가지 일이 온 후에야 이방인들은 유대인

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리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가지 일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타산 후에 일어난 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전혀 없다(갈 3:26-28, 행 15:8-9).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동일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이방인 고백의 회심 이후에도 복음의 교리적 내용이 계속해서 이방인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거나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복음과 바울과 초대 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서로 달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다만 복음은 두 단계의 시대를 거쳐가게 되어 있었을 뿐이다. 즉,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이방인에게요(마 23:32, 행 1:13).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마 28) 말한 것이 아니라(마 28:19),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교도회 거기에 있다(행 13:46). 히브리서 기자 역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울의 가르침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전하신 말씀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마 23). 일례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영으로만 얻은 것이요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고 선포했다(고후 3:6). 그것 자체도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다(마 6:63).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동료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은 이전부터 전해졌던 일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계시로 받아들여 좀 더 좁아지고 좀 더 깊어졌을 뿐이다(갈 1:11-12, 고전 11:23, 살전 4:13).

주님의 말씀은 기쁨의 메시지로 복음 선포해 주는 말씀이며 은혜의 말씀이 하나니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다(요 17:26).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셨다. 주님은 율법에 신고되어 있는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다(요 11:25-26). 그러므로 비록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시대의 환경과 천국의 교리들은 일차적으로 유대와 유대인들의 신학과 정경에 맞추어져 있었지만, 그 복음의 본질과 영성은 삼한 인간 나타낸 참 자유의 복음이었다. 온 인류에게 내리려 한 것은 온종의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는 낱가름에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야 하나님의 기쁨은 온혜 배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제 둘리라는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대해야 하였겠는가? 실로 우리의 놀라움과 기쁨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도 놀라워(행 13:16). 주 우리는 이 복음을 얼마나 확신 가운데 붙어 전해야 하였겠는가? 이 복음을 듣고 살을 남는 자의 발아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자국이다(5:27).

지 · 난 · 수 · 요 · 예 · 배 · 매 · 시 · 지

자유함 (요 8:32-36)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영혼 안에서 자유를 찾기 때문에 오로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던 너희가 온전히 자유하라”(요 8:36) 그러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자유는 어떤 것일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골 2:16).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사미이 아니라 인간이 세울 수 없는 자유로이 되고 구원으로 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산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언약에서 자유를 누리고 인간의 길을 걷지 않는다(5:18). 예수를 믿는 자는 아직도 양심이 괴로운가? 아직도 무거운 멍에를 진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라(행 13:16).”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를 무거운 죄로부터 죄의 짐을 벗겨 주셨다(골 2:16-17). 그러다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갖춰 천국으로 들어가 거룩한 길을 가길 수 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라. 오직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 거룩한 길을 가길 수 있다(시 35:4). 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일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유로부터의 자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롬 8:1). 왜냐하면 예

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때문이다(요 5:24).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호를 받는다(요 10:10). 물론 여전히 사탄의 공격은 강력하고,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욕망이나 자존심을 건드리며 공격해 들어오는 때는 더욱더 강력하다(골 3:5). 하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그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요 17:11).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참으로 주를 믿는 자는 이방인 족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뿐이다. “무릇 살리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나.”(요 11:26) 믿는 자들은 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골 2:18, 요 3:16).

자유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건장을 받아 자유로운 몸이 되실 것이다(마 10:1, 11:2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자들은 율법으로 누리고 있는가? 혹은 야만인으로 남아 거기 사하여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라. 그 분을 진실하게 믿도록 하라. 그러하면 생령께서 당신에게도 이러한 자유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러 가지 사물에 매여 있는 자들이나 다 외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

FOOLISH RICH MAN

“And He told them a parable, saying, ‘The land of a certain rich man was very productive. And he began reasoning to himself, saying, ‘What shall I do, since I have no place to store my crops?’ And he said,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lar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So is the man who lays up treasure for himself, and is not rich toward God.” (Luke 12:16~21).

In today's Bible passage, Jesus tells a story about a foolish rich man. Before He begins, He gives the large crowd an important message, "Beware, and be on your guard against every form of greed; for not even when one has an abundance does his life consist of his possessions" (v. 15). Here we find God's calculation, His measurement concerning the value of money in relation to human life. Jesus uses this educational platform to teach the people not to be foolish in their thinking about earthly goods, material wealth. He wants people to understand what is valuable in this world. His sermon is a reminder to us all that we need to review, and make sure our wealth is stored in the right place.

The story begins with a rich man, whose land is very productive, reasoning over how he should manage his wealth. He comes up with a plan, and privately thinks he is a success, wise in his own ways, but God thinks differently. He looks upon this man as stupid, a true fool. Jesus strongly emphasizes this point,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v. 20). This man has no sense of God. He has no feeling for the Lord. Instead, he maintains a very high image of himself. He is the type of man who tells his children to look at the surroundings he has provided them, the business, buildings, saving accounts, summer houses, clothes, employees, and his overall reputation. His children look on with awe and respect, wondering how their father accomplished so much. Certainly, he received much praise from those who marveled at his actions. He was sensitive to honor and admiration, more concerned with worldly wealth and recognition than the Bible. His goals, hopes, and dreams centered on earthly riches, "This is what I will do: I will tear down my barns and build bigger ones, and there I will store all my grain and my goods" (v. 18). This smart, clever, and perhaps even hard working man stored his wealth in earthly vessels. He totally considered money as his bible. His worldly thinking was wrong, dead wrong!

This foolish rich man also believed his soul was his physical body: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v. 19). Sadly, many of today's Christians think and act in

a like manner. Their desire for expensive food, clothes, homes, and cars is shameful. Their want for the finer things this world has to offer is alarming. Moreover, pastors are actually teaching Christians that earthly things bring happiness, and this happiness is a blessing from God. Indeed, this rich man experienced such happiness. He placed all his treasure in the here and now. He indulged himself in the pleasures of today. His judgment of his soul was wrong, dead wrong!

Lastly, this stupid rich man calculated his earthly life for eternal life. Listen to his words, and hear God's response, "And I will say to my soul, 'Soul, you have many goods laid up for many years to come; take your ease, eat, drink and be merry.' But God said to him,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soul is required of you; and now who will own what you have prepared'" (vv. 19&20)? There is an eternal heaven that God freely offers to those who trust in Him. The rich man didn't figure this into his plans. He decided to build his own life with his own talent. He wanted to be proud of his own capabilities. He forgot to calculate the brevity of human life, for nobody knows how long his or her time on earth will be. His problem, like many people today, is in living life like the earth is all there is. This rich man lived wrong, deadly wrong!

My dear friend, don't be a fool. Don't be a wise person for earthly things. Don't rely on yourself. The world's ways are foolishness to God. Jesus plainly tells us that a fool is anyone who stores up treasure for themselves, and is not rich toward God (v. 21). He is giving us a great secret. First, and foremost, seek the kingdom of God, for everything else will be added to you. Whatever earthly things you have come from God's hand, not yours. God gives you things to use for His glory. So, be ready, "for the Son of Man is coming at an hour that you do not expect" (Lk 12:40). As a Christian, don't pretend to love God and still place your hope in earthly things. As an unbeliever, repent and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Don't be a fool!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Lk 12:34). Where is your treasure? 🙏

다움주일성고

어리석은 부자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었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16~21)



김성원 목사

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중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15절).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돈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축복방법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돈의 참된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방법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적인 부에 관하여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재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정밀하게 살펴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하아금 우리의 보화를 올바른 곳에 쌓도록 만들어 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1)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자의 첫 모습은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하여 그 많은 곡식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 부자는 한 가지 좋은 계획을 생각해 냅니다. 그 부자는 자기 자신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자신이 생각해 낸 계획도 참으로 탁월하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 참으로 우매한 부자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20절). 이 부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신경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만 높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사업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과 지옥에 놓은 돈, 별장과 고급 의상, 회사의 규모와 명예, 그리고 자신이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가 자신의 성공과 많은 재산을 자랑했을 때 그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감탄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우러러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부자는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자는 명예와 칭찬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보다는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의 목표와 소망과 꿈은 이 땅의 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18절). 어떤 점에서 부자는 매우 영리하고 똑똑했으며 자신의 일에 매우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재산을 이 세상에 쌓아두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오직 돈, 돈, 돈뿐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이 세상만 생각한 것, 오직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만 생각한 것! 바로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2)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또 다른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영혼으로 착각했습니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19절). 슬프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유명한 식당들을 찾아다니고, 유행에 뒤지지 않는 옷을 사서 입는다 정

신이 없으며,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를 고대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이 제공하는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사들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가르치며, 이런 행복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모든 보화를 이 세상에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또다른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3)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착각했습니다. 부자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19절). 이 반에는 부자의 그와 같은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었느냐?”(20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재물을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설계할 때에는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잘못 살았습니다. 철저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21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스스로 얻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뜻을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눅 12:40)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면서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원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리라”(눅 12:34). 과연,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1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9월 25일(목)~10월 6일(월)	R	1교구 1지역	이보신
9월 25일(목)~10월 6일(월)	R	1교구 2지역	이승득
10월 3일(금)~10월 11일(토)	L	5교구 4지역	정대동
10월 3일(금)~10월 11일(토)	L	5교구 5지역	양승길
10월 3일(금)~10월 11일(토)	L	5교구 2지역	장석윤

*선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다녀와서

송민 회 (대학부)

선교를 결심하기 전 '나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일꾼도 선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3개월 동안 기도함으로 점점 담대함을 얻어갔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떠났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것을 얻고 왔다.

우리 팀이 간 곳은 우크라이나의 시골 마을이었다. 거리가 한산해서 집을 방문했더니 집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집에 있었다. 일자리가 없는 그들에게 동감도 가고 불쌍했지만 그 영혼들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라 믿으며, 비록 러시아가 말아 서툴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전했다. 내 진심이 받아들여졌는지 그들은 환한 미소로 전도지를 읽었다. 처음 우리팀이 사역을 계획할 때는 개방적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노인분들 또한 반응이 좋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셨다. 맛있는 과일들을 꺼내주며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자신들의 힘들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복음을 전했으니 주님이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주님을 받아들였을까? 열려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맞이한 주일에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주일에 마을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 초점 잔치를 열었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80여 명이나 왔다. 자신의 집에 있는 맛있는 과일을 가지고 온 사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온 사람 등, 하나둘씩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이 더 해짐을 얻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나에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고 항상 부족한 나를 이끌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서 만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가 그들의 귀에도 들릴 줄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나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단기 선교에, 젊은이들이 많이 나갔으면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10월 6일(월)~10월 15일(수)	G	17교구 8지역	김만중

◆ 지난주 도착한 선교팀

기 간	선교회	팀	팀 장
9월 22일(월)~9월 30일(화)	D	15교구 5지역	이강근

나의 힘과 지혜가 아직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윤 정훈 (전도사, 외선부부지도)

지난 주석에 충청기도원에서 외선부 가을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를 위해 교사들은 2주간 탈레이 금식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매주 가졌다. 이번 기도회는 내게 특별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가진 노력들을 하나 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기에 잘 될거야' 하는 마음을 더 의지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번엔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숫자에 집착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했던 내 모습이 마치 인구조사를 통해 군인의 수에 교환해줬던 다윗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팔십 만이요 유다 사람이 오십 만이었더라" (삼하 24:9). 자신의 국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심판을 받았다. 나는 나의 힘도 나의 지혜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회개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겠다.

결국 이번 수련회에서도 주님이 승리하셨다. 예상했던 인원보다 배나 되는 인원이 왔다. '내전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지체들이 절반이 넘었다. 외선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라 고 하자 대부분이 일어났다. 그 때 나는 예수남편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남편이 진정한 주요우 보다 의지할 분이십니다'라고 찬양을 드렸다.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 2:2).

선교 위원회! 제공 전도 견본

♥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적중하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자매님(형제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자매님(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10분 정도 시간을 내 주겠습니까? (전도지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함)

하나님은 ○○○자매님(형제님)을 만드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습니다. ○○○자매님(형제님)은 이 땅 위에 태어났는데 또 다 살 것 같습니까? 머지 않아 저도 자매님(형제님)도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와 ○○○자매님(형제님)도 죄인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며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자매님(형제님)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자매님(형제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남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자매님(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천국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렇다면 교회로 오십시오(주노바 전도지를 건네줌). 오시기가 부끄러우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혹 책자를 받고 싶다면 주노바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묵상하며 ①

사도행전에서 만난 제자들은 분명히 변화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과 시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살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는지(예배만 관습이 있었을지라도) (마 19:27, 20:21)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큰 혼란을 가졌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십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의 사례를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행 1:4). 그리고 그런 가르침 끝에 제자들은 또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까지를 돌보았나. 그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기도가 성령을 통한 변화가 필요함(행 1:6).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8).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단순히 기도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행 1:14). 영어 성경으로는 '고집있이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서(마 26:42) 기도하는 정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작정과 시련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할 수 없다는 사실과 기도의 할 필요성을 깨달은 것만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도와 사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능력있는 증거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초자연적 기 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니라"(골 4:3)

(전도신문)

충헌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눈물의 고백

박준규 (고동부)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곳을 모르고 절망에 빠진 내게 주님께서 찾아와 새 삶을 주시고 나를 바꿔주셨다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온갖 곤욕과 핍박을 당하시니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대신 길을 갈 수 있을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세리를 비웃은 바리새인이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길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참 사랑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사랑 없이 살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간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조롱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진 길을 가야 한다고 쉽게 말하고는 있지만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 낙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견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십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만큼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그 후로는 참 평안을 누리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을 버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다 바꾸 무언가에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버리고 그분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김한나(장학생)

고 3를 맞이하여 학창시절의 마지막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고3이라는 핑계로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도 많이 했지만 주님께서 이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 성경을 준비하며 초원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친구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죄 지은 나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가 못 박았다고 결단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광방 복음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광방 복음이란 여덟 개의 방이 있어 각 방에서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이나 지옥의 방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각각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보혈의 방이었습니다. 보혈의 방에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내용이 담긴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장면이었지만 그것을 볼 때에 제 가슴은 무척 아팠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허리를 펴고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던 걸까요? 그건 아마도 제가 죄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광방 프로그램을 마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고 내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십자가를 지고 그대에게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사모임으로 인해, 나와 성령 그리고 다른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인 것 같 배웠습니다. 또 성령 충만으로 사도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절대적 사랑을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베풀어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과 하나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주님의 복음의 중언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 (1)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크로뿐이다. 만약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결국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은 직접으로 말하는 것은 관례를 어색하게 하고, 혹은 미련하며 불가능하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방법, 즉 컴퓨터에 자료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 같은 방법론에 더 쉽게 매료되어 그것을 통해 결과를 얻고자 한다. 날이 갈수록 선교나 전도에 방법론은 무성해지고, 그 원인과 원칙을 잃어버려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는 1740년 대 미국을 휩쓴 대각성 운동의 주도자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짐 엘리엇 등 수 많은 선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 사역에 총사출한 영웅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21세에 개종을 하고, 24세에 헌신을 해서, 29세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선교 사역 일지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영혼들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만이 선교 사역의 전부여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 이에 그가 1742년부터 미국 내 인디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쓴 일기의 내용을 다음주부터 정리해서 소개한다.

(정성진 기자)

오직 말씀으로

율법의 잘못된 이해

사단도 율법을 좋아한다. 성경 속에서도 사단은 율법을 이용하여 많은 성도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미혹하거나 시험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마 22:35,36). 그러나 이것을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율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나면 율법을 통한 사단의 어떤 유혹,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사단은 율법을 변질시켰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단의 율법, 두 가지가 되었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서로 자신들의 율법이 옳다고 싸우는 싸움은 끊이지 않았다(렘 8:8).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이 율법에서 자기의 취할 것, 즉 의의만 취하고 그 진리는 버렸기 때문이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재의 십일조를 드시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우리가 진작 성경에 나타난 율법을 대한다면 잔뜩 놀라게 된다. 진작 율법은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지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롬 2:13). 특히 이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함을 목적으로 삼다 보니 그 진의를 잊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보라. 율법이 무어라고 말하는가?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드러나야 하리랴 하냐 이 인자는 누구냐"(요 12:34). 놀랍게도 율법을 행하는 데 무엇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라 하고

말한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율법인가? 이해가

가나? "그러나 이는 저의 율법에 기록된 바 저자가 없고

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오히려 하려 함이니라"(요

15:25).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것까지도 율

법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율법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닌가? 이 말씀들은 이사와와 다윗의 예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율법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나 율리,

선행 등의 행위들은 아주 미약한 것들이다.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 저절로 따르

는 것들이며 성령이 말하는 진리 율법의 변두리에 놓여진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런 미비한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받으며 싸우고 질책하며 삶의 중앙을 가로지르

는 중요한 것인 양 열을 내는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자기에 율법이 되나니"(롬 2:14). 율법을 행위로 보고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

지 아니하면 결국 자신이 율법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런 자에게는 결국 "율법을 자랑하

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롬 2:23)한 말씀이 적절하리라. 욕

되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버린 죄를 범했던 것이다. 이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적

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

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롬 2:19).

(권오섭)

고난도 행복일세

- 윌리엄 카우퍼(William Cowper)



십자가 지고 사는 삶
내겐 고통 아니네.
모든 고난 거룩케 하시는
구주의 능력 알아가는 것
세상 사는 동안 내 큰 행복일세.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이 없다면
이 땅에서 징계가 전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고난은 믿음의 단맛을 길게 하고
더 깊은 기도를 자아내며
그리스도의 발 아래 나를 알리고
그곳에 겸손히 머물게 하네.

악인은 매를 맞지 않으면서
세상의 덧없는 즐거움을 맘껏 누리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매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으며
혹 피할 수 있다 해도 결코 피하지 않으니.

* 참고 구절: 히 12:6-8, 시 119:71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이 무엇인지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즘 들어 특히 좋아하게 된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입니다. 특히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를 거듭 찬양할 때마다 늘 새롭게 은혜를 주심을 느낍니다. 천 항상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강한 모습만 보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 스스로 채우려고 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더군요. 이처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찬송가의 제목 밑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등 평소에 찬양을 하면서 찬양과 관련한 성경말씀을 묵상합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 하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생각할 때 신앙 여정에 큰 전환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중학교 2학년 수련회를 통해 회개하며 한평생은 기쁘서 울고 있는 나를 따스하게 품어 주신 성령님을 느낀 후였습니다. 그 때 이후 말씀묵상, 기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만큼 열심히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말씀과 여러 상황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생각합니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시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찬양대를 하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부 때 친구들이 찬양대를 하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찬양대 시험을 봤다가 떨어지고 3학년 때 합격하고부터 지금까지 대학부 임원시절을 제외하고는 계속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으며,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4.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느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는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진심 함으로 찬양하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더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또 찬양하는 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충실하면 멀리지도 않을 뿐더러 앞에 선 자로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나의 찬양이 지친 영혼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의 순수함과 기쁨을 회복시키사 믿음 안에서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홍인국 성도
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임혜원 기자)

다음 주일 찬송

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조지 매티슨(George Matheson, 1842-1906) 박사가 1890년 덤바론셔로우에서 작시한 이 찬송가는 그의 「성가집(Sacred Songs)」에 실렸던 것으로 1892년 이래 널리 애창되는 찬송가다. 매티슨 박사는 스코틀랜드의 뛰어난 설교가요, 찬송가 작가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시력장애로 고생하다가 18세 때 글래스고우 대학에 들어간 후 완전히 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한 삶 속에서도 1866년부터 교회에서 목회사역을 하였다. 그는 매력적인 인격과 설교자로서의 뛰어난 능력으로 심 못령들을 사로잡았다.

이 찬송가의 작곡자는 에드워드 다르(Edward Dearle, 1806-1891)로서 본래는 잊모어의 찬송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또 다시 만나오니" 곡으로 이 곡을 작곡하였다. 작곡자 다르는 여러 교회 오르가니스트를 역임하였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런던 트리니티 대학 창설자 중의 하나이다.

- 1절: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히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 2절: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 3절: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아서 이리춤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버릴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헌신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찬송해야 한다.

(찬양위원)

찬양오실

7교구 동남 3구역 강신호 집사

교회 차량봉사 하는 도중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뇌출혈을 일으킨 적이 있어 더 긴급한 치료와 많은 관심을 요합니다. 현재는 아산 병원 73병동 35호에 입원 중이며 재활과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쾌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교구 명일 삼익구역 이화련 권사

고관절 부상으로 수술을 했습니다. 강동 심심병원 1007호에 입원 중입니다. 빠른 치료와 변치않는 신앙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04	조종근	1 청년부 구원팀(1)		1213	박승자	6 청년부 박우현(1)		1222	조혜원	19 청년부 김희수(1)	
1205	김지은	1 청년부 구원팀(1)		1214	임용혜	6 청년부 이진규(6)		1223	이희중	19 고등부 김영모(5)	
1206	정선원	1 청년부 최준규(1)		1215	안우분	6 청년부 이진규(6)		1224	최규봉	19 고등부	
1207	김태환	1 청년2부		1216	김정우	12 청년2부 엄경자(3)		1225	알렉스	19 외산부	
1208	유환수	1 청년2부		1217	최영희	13 청년2부		1226	윤유다	19 청년2부 김순선(2)	
1209	이미진	1 청년부 시승호(1)		1218	정규산	14 청년부 서경희(5)		1227	김진우	19 청년2부 김순선(2)	
1210	김성희	4 청년2부		1219	김희정	16 소망부 전용혜(8)		1228	박수현	19 청년1부 최정숙(5)	
1211	윤남순	4 청년2부		1220	전현정	17 청년1부 김경자(17)		1229	이옥선	19 청년2부 윤경미(16)	
1212	김경희	5 청년1부 박민국(19)		1221	윤종영	19 청년1부 최숙경(17)		1230	최우성	19 대학부	

※ 총천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표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김혜진 (중동1부 교사)

중동 1부는 매주 사랑부 예배에 참석하며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다. 처음 사랑부 지체들과 만날 때는 자신들과 달라서인지 많이 주저했다. 그런데 사랑부 지체들을 만나는 중동 1부 아이들의 표정은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들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다가가려 하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사랑부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주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사랑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구부러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세상의 한 가운데 교회가 있고,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사랑부 지체들을 통하여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키우면서 가정, 학교, 교회에서 남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랑부 예배를 마친 아이들은 "사랑부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모두 고쳐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세상의 현실과 비교해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에는 복음의 씨가 자라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교양상성부 교육을 받으며

제 2강 가르침을 위한 성경 연구 방법

교양상성부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지체들이다.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능숙한 화술과 성경적 지식의 풍요함으로 그들을 가르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때의 깨달음과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것이 어려서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1-2).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은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토대나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체득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기도 하지만, 듣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능동적이기도, 수동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타이틀이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제자보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추상적이고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중심에 진실함을 주셔서 원하시오나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시 51:6).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칼럼 질문은 무엇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광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유와 감동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패역과 죄악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지와 교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딤후 1:11).

(한원대 기자)

에바다부를 바라보며...

최윤영 (에바다부 교사)

내가 에바다부 교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2년 전 교양상성으로 수화를 배우면서였다. 단순히 동아리 사람들이 수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껴서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양과목 중에서 수화를 택했다. 한 학기 동안 기초 수화를 수료한 후에 나는 교회의 에바다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농아인들을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교사를 하겠다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생각을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었다. 나는 에바다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아인들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변하게 되었다. 순수하고 맑은 그들의 신앙이 나에게 도전이 될 때가 많았다. 나는 들을 수 있음에도 농아인들보다 더 들을 귀 없음을 보면서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발견했다. 그것은 장애인들의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주위에 있는 건청인들은 내가 수화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를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수화를 하기 때문에 농아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아직 세상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않다.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한다. 하지만 젊은 건청인이면서 속은 장애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본다. 우리의 결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겉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한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것이 이 세상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 에바다부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쫓겨주시고 따듯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을 참 감사한다. 이런 모습을 중헌교회에서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다.

(믿음의 학교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시편 100장)

"온 땅이여...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1,2절).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의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지요? 참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지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김"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기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진심으로 아는 자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롬 12:1).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을 신으로 너희를 알지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라"(3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쉬운 진리기에 이 진리를 잊고 살지는 않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이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속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4절). 왜 그 이름을 송축(頌讚)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분의 이름을 기리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그 언약의 이름의 의미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의 나라에 온전히 인도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땅에 살면서 그 분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하며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쁨 노래 소리를 듣고 이땅의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나아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궁정에 들어가서 그 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대제 여호와를 찬양하시라 그 언약자들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지리다"(5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자녀와 맺으신 언약을 세상에 남기지 지키시는 그 진실하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信實)하십니다.

(권형일 기자)

- 전임독청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업 (소리랑케)
-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